



국제플라자 뉴스



공익재단법인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880-0805 宮崎市橋通東4-8-1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Tel:0985-32-8457 Fax:0985-32-8512 Homepage:https://www.mif.or.jp E-mail:miyainfo@mif.or.jp
개관시간:오전10시~오후7시 (화요일~토요일) 휴관일:일·월·공휴일, 연말연시 (12월29일~1월3일)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 휴관일 안내

2021년 2월11일(목),2월23일(화)공휴일로 인해 폐관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미야자키현 국제 교류 협회의 국제 플라자는 2 월 8 일까지 폐쇄 예정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방재강좌 ※사전신청필요, 무료

구마모토 지진을 체험한 구마모토 대학의 유학생 그룹 '구마모토 지진체험 프로젝트(KEEP)'분들이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재해시에 필요한 지식을 함께 배워봅시다. ※강연은 알기 쉬운 일본어와 일부 영어로 진행합니다.

◇일 시 : 2월20일 (토) 14:00~16:00

◇장 소 : 온라인으로 개최

◇강 사: 구마모토지진체험 프로젝트 Kumamoto Earthquake Experience Project (KEEP)

◇정 원 : 20명

◇마 감 : 2월12일(금)

◇신청방법 : ①이름 ②전화번호 ③메일주소 ④국적을 기재한 후 방문, Fax 또는 메일로 신청해주시고. 메일로 신청할 때는 메일 제목을 '外国人のための防災講座'로 기재바랍니다.



외국인 재해 서포트 자원봉사 양성강좌

※사전신청필요, 무료

재해가 일어났을 때 외국인 지원에 필요한 지식을 몸에 익히고 외국인 지원에 대한 마음가짐과 정보 제공 방식 등 외국인 지원 방법을 배우기 위한 강좌입니다.

◇일 시 : 2월13일(토) 10:00~12:00

◇장 소 : 온라인으로 개최 ◇정 원 : 30명

◇신청방법 : ①주소 ②이름 ③전화번호 ④메일 주소를 기재한 후 전화, Fax또는 메일로 신청해주시고. 메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메일 제목을 '外国人災害サポートボランティア養成講座'로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문의 :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일본어 연습 ※자유 참가, 무료

◇일 시 : 10:30~11:30

[수요일] 2/3, 2/10, 2/17, 2/24

[금요일] 2/5, 2/12, 2/19, 2/26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문 의: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일본어 교실 in 쓰노/ 니치난

※사전신청필요, 참가비 무료

<쓰노>

◇테마 : 쓰노정 분리수거 방법을 알아보자!

스포츠를 응원할 때의 응원 문구를 알아보자!

◇일시 : 2월13일 (토) 13:30~15:30

◇장소 : 쓰노정 중앙공민관

◇접 수 : 15 명(선착순)

◇마 감 : 2월 5일 (금)

<니치난>

◇테마 : 일본어로 도전!~오비성하 마을을 걸어보자~

◇일시 : 2월20일 (토) 13:30~15:30

◇장소 : 니치난시 평생학습센터 학습피아

◇접 수 : 15 명(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합니다.)

◇마 감 : 2월12일 (금)

※신청방법 : 이름, 전화번호, 국적, 일본어 레벨을 메일 또는 FAX로 알려주시고.

※신청·문의 : (공재)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 카운터 자원봉사자 모집

현내재주의 18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국제플라자 업무를 도와주실 카운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신 후, 3/7 (토) 까지 신청바랍니다.

《응모다수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있음》

※국적은 관계없으나, 간단한 일본어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에게 한합니다.

◇활동기간 : 2021년 4/7(수)~9/30(목) ※공휴일 제외

◇활동일시 : 화요일~토요일 중 주1회

※매주 같은 요일, 시간대에 활동하시게 됩니다.

①10:15~12:45 ②13:00~15:30

◇내 용 : 방문객 대응, 도서 대여와 반환 수속, 문서발송 보조, 도서·자료정리, 재활용 우표의 정리와 발송 등

◇그 외 : 교통비, 사례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은 당협회가 부담하며, 카리노

미야자키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주차권을 드립니다.

◇마 감 : 3월6일(토)

◇신청·문의 :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이 변경되거나 중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여러분의 많은 이해 바랍니다.구체적인 정보는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 15회 아트 페스티벌 '외국인이 본 미야자키' 순회 전시회



2020년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에서 '외국인이 본 미야자키' 작품전이 개최됩니다. 순회 전시회는 노베오카시, 타카나베정서 개최됩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노베오카시】

- ◇일시 : 2월8일(월)~2월22일(월) 9:00~17:00
- ◇장소 : 노베오카시청 1층 시민공간
- ◇문의 : 노베오카시 국제교류추진실 Tel 0982-22-7006

【타카나베정】

- ◇일시 : 3월6일(토), 3월21일(일) 10:00~17:00
- ◇장소 : 타카나베정 미술관

외국인을위한 생활 상담회 in 쓰노정



생활 속에서 곤란한 점을 상담 할 수 있습니다. 모국어는 상담 할 수 있습니다. (번역기 전화 통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비밀은 지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중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시 : 2월 13일 (토) 시간 : 15 : 30 ~ 16 : 30
- ◇장소 : 쓰노정 중앙공민관
- ◇마감 : 2월 6 일 (토) 까지 우편 또는 FAX로
 - ① 이름 ② 연락처 (전화 번호) ③ 상담하고 싶은 것 ④ 상담하고 싶은 언어를 가르쳐주세요
- ◇신청·문의 : 미야자키 외국인 지원 센터



~타단체로부터의 안내~



《미야자키시》

- 「한국어 교실 초중급」
- ◇일시 : 2월 10일 (수) 부터 매주 수요일 총 6회
- ◇장소 : 미야자키 시민 문화 홀4층
- 「중국어 교실 중급」
- ◇일시 : 2월 10일 (수) 부터 매주 수요일 총 6회
- ◇일시 : 미야자키 시민 문화 홀4층
- ◇문의 : 미야자키시 국제 교류 협회
- TEL:0985-21-1719 (평일 9시~17시)
- FAX:0985-21-1733
- Email:miyazaki-mcia@miyazaki-catv.ne.jp
- HP: <http://www.miyazaki-mcia.jp/>
- FB: <https://www.facebook.com/miyazaki.mcia>

스태프의 한마디 ◎3년 달력

제 방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3년치의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이 달력은 미국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초지 카즈히로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달력은 가로4장X세로9장 정도의 사이즈로 3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한 눈에 보면 의외로 짧고 한 순간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빗금을 치고, 예정이나 목표가 있으면 적어놓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내기 쉬운 일상도 시각화 하는 것으로 귀중한 하루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조금이라도 제 자신에게 변화나 성장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스태프.U)

2월의 이벤트



이벤트·내용	개최일시	장 소	문의처
갯치바이 매실축제	2/6 (토) - 2/21 (일)	미야자키시 갯치바이 공원	타카오카종합지점 0985-82-1111

미소:미야자키의 소소한이야기

꿈과 해몽



국제교류원 박유진

여러분들은 꿈을 자주 꾸시나요? 한국에서는 꿈의 내용에 따라서 길몽과 흉몽으로 해석하는데요.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것을 '해몽'이라고 합니다. 이번 2월 칼럼에서는 한국의 '꿈과 해몽' 대해서 같이 소통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좋은 꿈을 대표하는 꿈이라고 하면 '돼지'가 나오는 꿈을 뽑을 수 있습니다. 돼지는 복, 행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한국에서는 '돼지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길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나쁜 꿈을 대표하는 동물도 있는데요. 그 동물은 바로 '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악몽을 꿴다라는 표현을 '개꿈 꿴다'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개'가 나오는 꿈은 흉몽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개'가 흉몽을 대표하는 동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속설은 없지만,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을 '개'에 빗대어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해몽도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또, 한국에서는 임산부에게 임신을 예견해주는 꿈인 '태몽'이 있습니다. 임산부 본인이 꾸거나 가까운 가족·친척이 꿈을 꾸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담으로 저의 태몽은 어머니가 과수원에서 빨갛고 예쁜 사과를 따는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하하.

이렇게 한국에서는 꿈과 해몽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와 속설이 담겨 있는데요. 이번 칼럼을 계기로 일본에서의 길몽과 흉몽은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비교해 보는 건 어떨까요?